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 “노동3권 보장하라”

13일 조계사 앞 ‘총궐기대회’ ...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행진 벌여

민주노총은 13일 오후3시 조계사 앞 도로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250만 명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이곳에서 사전 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제인 정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되고서도, 국정과제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약속했지만 지금 3년차인데도 여전히 이들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적폐 잔당과 손을 잡고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시도와 함께 교섭권과 단결권을 없애 우리 천만 이천만 노동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무권리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학습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많은 열사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ILO 총회 6월까지 투쟁을 결의하고 ILO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민중이 투쟁해 가는데 우리 특수고용 노



동자들이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ILO긴급공동행동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ILO가 올해 1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투표권’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권리가 노동법이었고, 노동자들의 권리였다”면서 “간접고용이라 해서, 특수고용이라 해서, 말도 안 되는 사장이라고 이름 붙여 권리를 빼앗는 지금의 상황은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기준법에 노동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면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법제화를 하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 40만 명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전 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특수고용 업종인 퀵오��바이, 택배차량 등을 앞세워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외치면서 보신각 앞 도로(우정국로)와 동십자각 방향 을곡로를 지나 삼청로를 거쳐 브라질 대사관 방향 삼거리(청와대로)로 행진하고 정리 집회로 마무리했다.

이날 사전대회로는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13시 남대문 삼성분관 앞에서 ‘건설노동자 노동3권 쟁취대회’를 열고 행진으로 본대회에 합류했고,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는 12시 강남서초 로지본사 앞(포스코사거리)에서 ‘대리운전업 정상화를 위한 로지연합 규탄대회’를 열고 본대회에 합류했다.

한편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이날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8일과 9일, 11일 한국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노동과 세계〉

‘파인텍자본 김세권은 변하지 않았다’

파인텍 투쟁경과 보고대회 ... 잠정 합의안도 지키는 않는 김세권 사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는 11일 오후 7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투쟁 경과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파인텍 지회는 14년 408일 구미 공장 굴뚝고공농성, 17년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426일 고공농성, 단식과 오체투지 등 극한투쟁을 통해서 19년 1월 11일 파인텍 자본과 잠정합의에 이른 사업장이다.

파인텍지회 5명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을 해 왔고 앞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

꾸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소외를 밝혔다. 지회는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과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치료와 교섭을 병행하고 있었다.

파인텍 자본 김세권 사장은 잠정 합의 이후 지회와의 네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금전이 결부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등 불성실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파인텍 대표이사 김세권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대표가 파인텍 대표이사로 등

재, 19년 7월1일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해 조합원 5명을 업무 복귀, 2019년 1월1일부터 최소 3년간 고용 보장, 회사는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를 교섭단체로 인정, 기본급 시급을 최저임금+1000원,노조 사무실을 제공, 연 500시간에 해당하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이다.

지회는 합의된 위로금과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투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노동과 세계〉

“세월호 참사 전면재조사 하고 특별수사단 설치하라”

13일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기억문화제 열려

1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는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가 열렸다.

유가족과 시민 등 약 2만 여명이 모였다. 오후 특수고용노동자 총궐

기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발언자와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구속 재수사’,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 등 구호를 외쳤다. 문화제는 유가족

등 관련자 발언과 영상,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사흘 후인 16일엔 과거 합동 분향소가 있던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5주기 기억식이 있을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